

## 01

## 의무론과 칸트주의



의무론이란? 의무론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행위의 원칙에 주목하는 윤리 이론이다.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나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즉 도덕 법칙이나 의무에 따른 행위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칸트가 있다.

05

## 한눈에 보는 의무론의 특징



## 도덕적 옳음의 추구

도덕적 의무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명령되는 것이다.




## 보편성의 추구

도덕 법칙은 시대나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이어야만 한다.

## 칸트의 윤리 사상

칸트가 선의지를 강조한 까닭은? 칸트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는 수많은 변수와 우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는 옳고 그름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 행위자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의지를 강조한다. 선의지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로, 그 자체로 선택한 것이다.

10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같은 정신적 재능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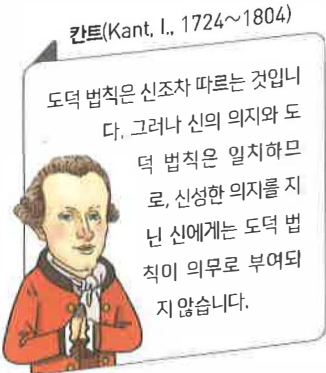
선의지를 중시하는 칸트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도덕 법칙이란?** 선의지는 의무의 근거인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기도 하다.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자유의 법칙이므로 자연법칙과 달리 오로지 이성적 존재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도덕 법칙이 의무의 근거로서 타당하기 위해서

는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화** 가능해야만 한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자기 행복의 원리에 의해 수립되어서는 안 되고, 일체의 경향성을 배제한 채 수립되어야만 한다.

**도덕 법칙은 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날까?**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다.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예컨대 “네가 장기적 이익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가언 명령에서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도덕 법칙으로서 제시한 정언 명령은?**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만약 어떤 준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준칙은 각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에 불과하다.

☞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라는 물음에 아주 간략하면서도 오류 없이 답하고자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본다.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져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적 법칙으로 의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 레니히스베르크(현재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칸트의 묘비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라는 『실천 이성 비판』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경향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나 동정심과 같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

**\*실천 이성**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 의지에 따른 행위를 규정하는 이성.

**\*준칙** 개인적 의지에 따른 행위 규칙.



## 칸트

이성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때 목적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울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칸트는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편적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정언 명령으로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를 제시한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칸트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

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라는 또 다른 정언 명령의 정식을 제시한다.

## 칸트 윤리 사상의 의의

칸트의 윤리 사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칸트의 의무론은 보편주의 정신과 인격주의 정신을 제시한다. 보편주의 정신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인격주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초석이 되고,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칸트의 윤리 사상에 대한 비판은? 칸트의 의무론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라는 의무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무는 서로 상충한다. 그런데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의무는 모두 보편화 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칸트의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와 행복을 도외시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칸트의 의무론은 행복 원리와 도덕 원리를 구분하면서 의무가 문제 될 때는 결코 자기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의 의무론은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실천하는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도덕적 행위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밀(Mill, J. S., 1806~1873)

칸트는 행위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비도덕적인 행위 규칙들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칸트주의와 그 의의

조건부 의무론이란? 칸트의 윤리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재 해석되었다. 이를 칸트의 사상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칸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의무론의 핵심을 발전적으로 계승 하면서도 칸트 의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로스(Ross, W. D., 1877~1971)**는 칸트 의무론의 한 계인 도덕적 의무끼리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보다 느슨한 **\*조건부 의무**를 제시한다. 로스에 따르면, 어떤 조건부 의무가 다른 조건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실천이 유보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두 가지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중 더 우선하는 의무는 실제적 의무로 드러나게 되고 다른 의무는 유보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약속 이행의 의무보다 선행의 의무를 더 우선하는 의무로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생명 구조가 약속 지키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칸트주의의 의의는?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의무론의 핵심인 보편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면서도 현실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칸트의 의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의무론의 인격주의를 바탕으로 인권 사상과 자유주의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조건부 의무** 조건부(prima facie)라는 말은 라틴어로 '일핏 보기에는'라는 의미이다.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할 경우 직관에 따라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의무의 종류에는 약속 이행의 의무(성실의 의무), 보은의 의무, 선행의 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정의의 의무, 자기 개선의 의무가 있다.

05

10

15



### 생각 실험실

#### 무엇이 도덕적인 행동일까?

• 윤리적 실천 방향 제시하기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지혜의 친구가 괴한들에게 쫓겨,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지혜는 그 친구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

그런데 친구를 쫓던 괴한들이 지혜의 집에 찾아와서

“누군가 여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상황에서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1 이 상황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칸트와 로스는 이 상황에서 각각 지혜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생각해 보자.
- 3 나라면 이 상황에서 지혜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생각해 보자.